

# 불면증 1



 Adobe Firefly

유페이퍼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 ChatGPT 3.5 공저

# 불면증 1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및  
ChatGPT 3.5 공저



# 목차

불면증 1	2
목차	4
머리말	6
1 장	10
2 장	30
맺음말	53



# 머리말

만화 스머프(smurf)에 등장하는 익살이(Jokey)는 노란색 상자를 빨간색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한 상자를 다른 스머프들에게 선물하고는, 그 상자를 받은 스머프들이 리본을 풀어 상자를 열어 볼 때 터지는 폭탄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지켜 보기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우주에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제 인생이 훌러가는 시공간은 마치 익살이 스머프(Jokey Smurf)처럼 제가 그 시간대를 향해 다가간 순간 폭탄처럼 예상할 수 없는 난관을 상자 안에 숨겨둔 채 무심한 척 그 상자를 제게 건네고는 한발 짹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기를 즐기는 듯 합니다. 인간이나 동식물과 같은 생물이든 바위나 흙과 같은 무생물이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이 미래라는 시공간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 저처럼 녹록치 않고 각자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겠지요?

그런 익살이의 폭탄 상자를 받고 나서 잠시 기분이 나빴다고 잘 털어내고 일어나는 스머프들처럼 저 역시 인생의 다음 장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의 비극은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 충격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위로하고자 얘기를 하다보니, 처음에는 제가 역경을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위로해 주던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제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매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는 없을 테니,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타인이 되어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털어내고 일어나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마음 속에 품고 묵묵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자꾸만 좌절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는 겁쟁이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시련과 상처를 이겨내고, 제게도 희망이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희망과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난방텐트 속에서,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 1 장

미니 크로스백을 대각선으로 메고, 왼쪽 어깨에는 에메랄드 빛  
에코백을 멘 채,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를, 왼손에는 카프카의 변  
신을 들고 나는 종각역 2번 출구에서 대학 시절 친구 여선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과 선생님  
이 되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싫었던 내가 2년간의 싸움 끝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물리학과에 진학  
하는 것을 허락받아 겨우 들어간 유명 여자대학교에 입학 때 신  
입생 OT(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같은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단짝이 된 친구이다.

‘어디에 있어? 난 2번 출구 지하 입구에 도착했어!’라고 나는 선  
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난 2번 출구 위에 올라와 있어. 내려갈까?’라고 선미가 답을 보  
내왔다.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더워서 시원한 실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ㅎㅎ’라고 나는 답을 했다.

밝은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선미의 얼굴은 언제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은 너나 나나 짐이 많네”라고 나를 보자마자 선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그녀 역시 가득 차 보이는 큰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햄버거 먹을래? 아니면 떡볶이 먹으러 갈래?”라고 나는 물었다.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너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잖아? 그러면 햄버거 먹으러 가자.”라고 선미는 말했다.

“아니야, 난 오늘 어떤 것을 먹든 상관이 없어. 게다가 서점에서 햄버거 집보다는 떡볶이 집이 더 가까워. 네가 먹고 싶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나는 답하며 앞장을 섰다.

“어차피 네가 길을 잘 찾고, 나는 여길 그렇게 자주 와도 매번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가자는 대로 해야지, 뭐. 그럼 매콤한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서점 가서 책도 실컷 구경하자.”라고 선미는 말하며 나를 따라왔다.

“이제 우리도 4학년 마지막 학기이네.”라고 내가 운을 떼었다.

“그러게, 너는 학점을 다 채웠어?”라고 선미가 물었다.

“응, 이대로 하면 채플도 다 패스할 거고, 영어 성적도 만들어 뒀어. 이제 졸업시험만 패스하면 되는데, 우리는 콜로퀴움만 다 들으면 되니까, 그것도 채플처럼 안 빠지면 패스할 거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문제이지, 졸업 요건은 다 맞춰가고 있지”라고 나는 답했다.

“잘 되었네. 우린 졸업 시험 치뤄야 해서 통계 프로그램 공부 좀 해야 해.”라고 선미는 말했다.

“맨날 네가 동아리 방 컴퓨터 쓰기만 하면 꺼지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너는 컴퓨터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통계 프로그램은 잘 다룬단 말야? 희한해, 하하”라고 나는 선미에게 농담을 건넸다.

“그러게, 이상하게 동아리 방 컴퓨터는 왜 매번 꺼지니?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겠어.”라고 선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워낙 오래된 컴퓨터여서 그런 것이지, 네가 사용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냥 네가 컴퓨터로 하려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컴퓨터의 사양이 너무 좋지 않은 거야. 괜히 네가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학교에서 바꿔줘야지, 우리가

뭐 돈이 있냐? 게다가 우리도 곧 졸업할 텐데, 컴퓨터 교체는 후 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제는.”라고 나는 말했다.

“졸업해도 앞으로도 나는 당분간 동아리방에 계속 나갈 생각이 야.”라고 선미는 말했다.

“왜?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라고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학교에 와서 하는 게 인강 듣기도 편하고, 집중도 잘 돼.”라고 선미는 말했다.

“응, 익숙한 장소니까. 나도 동아리방이 학교에서 제일 편해. 화장실도 가깝고, 매점도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필요한 것은 다 근처에 있으니까”라고 말하여 나는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 봤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나였지만, 선미와 먹는 떡볶이는 언제나 맛있었다.

떡볶이와 튀김을 열심히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 보니, 유리창 너머 가게 입구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다. 일부러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을 피한다고 11시에 만나서 바로 떡볶이 가게로 왔는데도 최근에 읽은 책이랑 보고 있는 미국드라마에 대해 얘기하다보니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이 되었나보다. 시계를 보니 12시 20분이 되어 가고 있었다.

“너 다 먹었어? 우리 이제 그만 일어나자. 밖에 사람들 많이 서 있어”라고 내가 말했다.

“저 사람들 아까부터 계속 많이 서 있었어. 저쪽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아직까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 서둘러도 돼.”라고 선미는 말했다.

“그래도 정리하고 일어나자. 직장 생활하는 내 동생이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여유부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열 받는다고 했어. 자

기도 바쁘지만,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먼저 왔다고 왜 여유를 부리냐고. 우린 서점 갔다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농땡이 좀 부리다가 가지, 뭐.”라고 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내 말에 수긍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선미도 짐을 챙겨 자리에 서 일어났다.

서점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되었다.

“토요일인데, 오늘도 학원 다녀온 거야?”라고 나는 물었다.

“응, 토요일 오전에 행정 과목 인기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줄서야 했어.”라고 선미는 말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나서 노는 거, 너는 피곤한 거 아니야?”라고 나는 물어보며 선미의 표정을 살폈다.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차피 어머니께는 오늘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천천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일찍 안 들어가도 괜찮아. 나도 좀 놀고 싶기도 했고.”라고 선미는 말했다.

“그래, 너도 가끔은 쉬어야지. 덕분에 나도 너랑 놀고 좋지, 뭐. 그런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내가 좀 나눠서 들어줘?”라고 나는 말했다.

“너도 짐이 많은데? 괜찮아, 매일 들고 다녀서 익숙해.”라고 선미는 말했다.

“이 에코백 안에 텀블러랑 공책 한 권 밖에 안 들어서 가벼워. 책 한 권 나눠줘. 이따가 집에 갈 때 돌려줄게.”라고 나는 고집을 부리며, 선미의 가방을 잡아 끌었다.

“알겠어. 잠깐만 저기 벤치에 서서 줄게, 그러면 한 권만 들어줘.”  
라고 말하며 벤치에 서서 책을 꺼내는 선미로부터 나는 책을 받  
아서 에코백에 잘 세워 넣었다.

“오늘도 과외 가?”라고 선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며 물었다.

“응, 8시에 수업 있어. 오늘 그 학생 가족들이 할머니댁에 다녀  
온다고 해서 취소하고 다른 날 하려고 했더니, 학생 어머니께서  
오늘 꼭 수업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녁에 하기로 했어. 점심 먹  
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때면 된다고 하셔서.”라고 말하며 나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과외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하는 애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 하고, 학생 어머니는 너무 엄격하시고,  
우리 집보다 더 낡은, 빌라처럼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부터 숨막혀서 그만두고 싶어.”라고 나는 한숨  
을 쉬며 말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과외를 받는 거야?”라고 선미는 물었다.

“응. 내 막내 동생이 하는 학습지 선생님께서 그 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 받으셨다고 해서 소개 받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숨막히는 분위기가 집안에서 느껴져서, 억지로 하고 있는 중이야.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개가 뭐든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공부를 뭐하러 하냐 그런 생각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업하는 내내 눈에 너무 보여서, 억지로 수업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거지, 뭐.”라고 말하며 나는 죄책감이 느껴졌다.

“진짜 내가 그냥 돈만 받으려고 거기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기분이 들어서 별로야.”라고 말하며 나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뭔지 알아?”라고 나는 물으며 선미의 표정을 살폈다.

선미는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낼 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서랍장 밑에서 뭐가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거야. 그게 뭐였는지 알아?”라고 나는 선미에게 다시 물었다.

“뭐였는데?”라고 선미는 내게 물었다.

“쥐.”라고 말하며 나는 몸을 떨었다.

“쥐? 진짜 살아 있는 쥐? 요즘 가정집에 쥐가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라고 선미는 놀라서 물었다.

“응, 진짜 살아 있는 쥐. 정확히는 햄스터래. 근데, 그거나 쥐나 같은 거잖아.”라고 말하며 나는 조금 울먹였다. 나는 동물을 직접 보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보통 햄스터는 케이지 안에 가둬두지 않나?”라고 선미는 물었다.

“그러니까! 학생 말로는 케이지에 가둬 두었는데, 자꾸 탈출해서 이제는 그냥 내버려둔대. 게다가 암수를 동시에 키워서 새끼를 많이 나았는데, 다 탈출해서 집안 구석 어딘가에 죽어 있는데, 그 사체를 다 못 찾았대.”라고 말하며 나는 다시 몸서리를 쳤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가구를 옮기고 다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선미는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 그 학생 엄마는 본인은 일하러 다녀서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애들한테 뭐든지 알아서 하라고 화 내면서 명령하시는 편이고, 애들 아빠는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매번 그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라고 말하며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돈 버는 거, 그지같지 않냐? 그나마 과외가 편하게 돈을 버는 거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렇지도 않은 기분이야.”라고 나는 불평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다.

“잠깐만! 하수연!”이라고 말하며 선미는 가던 길을 멈췄다.

“왜?”라고 나는 물으며 내 이름까지 크게 부르는 선미를 쳐다보았다.

“지금 하수연이 하소연이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온 거지?”라고 선미는 농담을 던졌다.

“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었네. 미안, 불평 안 할게.”라고 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나의 손을 잡으며, 선미는 말했다.

“괜찮아. 너도 그런 거 속에 담고 있으면 속상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안 좋지. 그냥 다 얘기하고 털어버려. 때로는 밖으로 다 얘기하는 게 도움이 돼.”

“고마워. 너 아니면, 딱히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하수연이 아니라 하소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너 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나는 선미의 손을 토닥인 후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며 걷다 보니, 우리는 서점 입구에 도착했다.

“넌 오늘 어떤 책 살 거야? 또 영어 원서 코너 둘러볼거야?”라고 선미는 물었다.

“응, 그럴 거야. 지난 번에 모더니즘 수업 시간에 찰스 디킨즈 (Charles Dickens)의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에 대해 배우고 나서 중도(중앙도서관) 가서 그거 원서를 빌려다 읽었는데, 글이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찰스 디킨즈에 대해 찾아

봤더니, 엄청난 사람이더라! 그 할아버지 책을 한 권 사서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라고 나는 아까와는 다르게 들떠서 말했다.

“그래, 그럼 가서 그 작가 책을 찾아보자.”라고 선미는 말했다.

“너는? 사고 싶은 책 있어?”라고 나는 물었다. 자꾸 나만 혼자 신나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 같아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딱히 없는데, 수험서 중에 보고 싶은 게 있어.”라고 선미는 말했다.

서점으로 들어선 우리는 공무원 수험서 코너로 먼저 향했다. 그 쪽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는 그 코너 옆 길목에 진열된 책들을 이리저리 들춰보며 선미가 책을 고르기를 기다렸다. 내가 관심없어 보이는 게 너무 드러났던 것인지, 선미는 책을 고르다 말고 내게 다가왔다.

“이제 네가 사고 싶은 원서 코너로 가자.”라고 선미는 말했다.

“왜? 책 다 골랐어? 안 사?”라고 나는 물었다.

“응, 그냥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듣는 수업의 강사님이 인강(인터넷 강의)에서 본인이 이번에 새로 낸 교재에 대해 언급해서 기존 교재랑 뭐가 많이 달라졌나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라고 선미는 답했다.

“바뀐 거 많아? 옛날 교재랑?”라고 나는 물었다.

“아니야, 그렇게 중요하게 바뀐 거는 아니고, 어차피 다 인강(인터넷 강의)에 올린 자료에 있는 내용이라서 안 사도 돼.”라고 선미는 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찰스 디킨즈를 만나러 가보자.”라고 말하며 나는 또 앞장서서 원서 코너를 향했다. 나는 설레임과 신나는 기분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영어 원서를 읽어 본 경험이 많지는 않았고, 지난 번에 읽었던 두 도시 이야기는 첫 페이지부터 모르는 단어들 투성이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읽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인상은 매우 강렬했다. 한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다양한 단어들을 적절하게, 또 자유롭게 사용해서 완벽한 페이지를 만들어 낸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던 탓에, 그런 작가의 책을 한 권 소유하고 싶었다.

나와 함께 다양한 표지의 원서들을 둘러보며 선미는 물었다.  
“무슨 책을 살 거야? 정했어?”

“아마도 Great Expectations? 찾아보니까 그게 유명하더라고. 잘 모르니까 유명한 책부터 읽어보려고. 내용도 지금 내 상황이랑 맞는 것 같고.”라고 나는 답하며, 며칠 전 첫번째 남자친구 차진석으로부터 헤어지자고 메시지를 받은 것을 떠올리며 기분이 씁쓸해졌다.

그런 나의 기분을 눈치 챈 선미는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그 사람?”이라고 나는 모른 척하며 물었다.

“네 전 남자친구.”라고 선미는 답했다.

“응, 아무래도 나 차단 당한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면.”이라고 말하는 나의 목소리는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그래, 다 잊어버려. 어차피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선미는 나를 위로하며 어깨를 문지르며 말했다.

“응,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나랑 사귀는 5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만난 여자가 10명이 넘더라. 지 친구 여동생들, 나랑 같이 재수 학원에서 만난 애들, 지네 학교 애들 등등. 만나는 사람이 여자면 안 찔러 본 사람이 없는 수준으로 다 건드리고 다녔더라. 나

한테 어디서 받았다고 준 선물들이 모두 다 그 여자애들이 객한 테 사줬는데, 지가 안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류, 지한테는 쓸모없는 인형이나 책 같은 것들이니까 나한테 주면서 쓰레기 처리한 거였더라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며 나는 여러 판본의 Great Expectations 중 한 권을 골라 들었다.

검은색 배경에 빛바랜 웨딩드레스를 입은 광기 어린 여성의 모습이 표지로 있는 책이었다. 책등이 빨간 색이어서 그런지 그런 표지 속 여성의 모습이 더욱 비참해보였다. 책의 내용이나 표지 속 여자 캐릭터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지만, 사구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게 결혼해서 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불어 있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그 놈으로부터 버림 받은 나의 모습 같아 보였다. 그래서 다른 표지에 비해 이 책에 조금 더 마음이 쓰였다.



## 2 장

협력 연구를 위해 도쿄 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회의가 끝났다.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알아듣고, 내가 준비한 내용의 발표도 무사히 잘 마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안심을 하며 내 자리 책상에 앉아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는데, 후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언니, 미영 언니가 10분 뒤에 회의실로 모여서 얘기할 거니까, 언니도 빠지지 말고 오래요.”

“응? 아! 알았어, 갈게.”라고 말하며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마지막 학기의 수업이 끝나기 2주 전, 전공 과목의 교수님 두 분이 각각 내게 본인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면담을 하기를 청하

셔서, 찾아갔을 때 두 분 모두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다. 그 때 까지도 여전히 졸업 후의 자취를 정하지 못한 나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비싼 수업료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대학 등록금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닌 후, 취직해서 갚기로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나를 차버린 차진석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의 모습이 그의 귀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없어도 나는 잘 지내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멋지게 과학자가 된 모습을 통해 ‘너 같은 인간 없어도 난 알아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에게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고, 당장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기도 했다.

그렇게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다음주부터 대학원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실 사람들과 어색한 사이인 나는 그동안 이런 모임에 불러주지 않아서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 탓인지 나를 모임에 불렀다.

‘아마도 투명 유리로 된 회의실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나만 빠져 있으면 자신들이 따돌리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날 부른 거겠지? 오늘은 괜히 나에게 이상한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네.’라고 나는 생각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 노트와 책을 펼치고 펜을 들고 눈으로는 시계와 회의실을 번갈아 보며, 들어갈 기회를 찾고 있었다. 괜히 제일 먼저 회의실에 앉아서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연구실에 속해 있는 학생들 7명 중 2명이 회의실에 가서 앉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속히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회의실에 가서 앉았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연구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사과정생인 미영 언니만 빼고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아 연구 노트와 펜을 준비하자 곧 미영 언니가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등을 기대 앉으며 갑자기 나를 콕 찝어 쳐다보며 물었다.

“넌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영어를 잘 해? 교수님이 외국인만 오면 꼭 너를 부르시잖아?”라고 묻는 미영 언니의 어조에는 못마땅함이 잔뜩 배어 있었다.

연구실에 출근을 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연세가 많으신 연구원과 대학원생 한 명이 협력 연구를 위해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그 때 그 두 사람과 내가 얘기가 잘 통한 부분이 있어서, 체류하시는 동안 사석에서 셋이서만 함께 식사를 하러 가거나 영화관을 다녀가는 등의 접대를 담당하게 된 이후로 미영 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채기는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적대적으로 내게 딴지를 걸 지는 몰랐다. 뭐라고 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어디 가서 공부한 적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전 외국 여행도 한 번 가 본 적이 없는 걸요.”라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너 학과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영어 천재께서 어쩌다가 물리학과로 오셨대? 영문학과로 갔어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라고 미영 언니는 펜을 공책에 여러 번 내리치며 비아냥거렸다.

그 얘기에 다들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어차피 영어 천재는 아까 도쿄대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이해했을 테니까, 우리한테 공유 좀 하지 그래?”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톡 쏘며 지은이가 말했다. 지은은 다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우리 학교의 연구실로 진학하였다. 삼수를 해서 대학을 늦게 입학하기도 했고, 대학교 재학 시절 1학기를 휴학해서 졸업이 늦어져 또래보다 3년을 늦게 학업을 시작한 나보다 1년 대학원에 일찍 입학한 동갑내기였다.

계속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째려 보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이 더 욱 미움을 살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여 연구 노트만 뒤적였다.

“어디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까요?”라고 말하며 나는 최대한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왜? 너무 천재셔서 우리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요, 언니?”라고 말하며 지은은 동의를 구하는 표정으로 미영 언니를 바라봤다.

그 말에 나는 더욱 당혹스러웠다.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울려고?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왜 울어?”라고 미영 언니는 다시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얘기했다.

“저, 안 울어요. 아까 회의 때 메모한 거 정리해서 이메일로 모두에게 보내 드리면 될까요?”라고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만 자리로 돌아가죠. 도쿄대 교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쪽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보여 주는 거 이상하잖아요? 다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실 생활을 한 나은 언니가 말하며 미영 언니를 바라봤다.

회의실 밖을 본 미영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수연이는 1시간 안에 아까 회의 내용 정리해서 이메일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회의 때 각자 맡은 일들 제대로 이해했는지 얘기하자. 티나지 않게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한 후 미영 언니는 일부러 회의실 책상을 공책으로 두 번 쳤다.

“특히, 너, 하수연. 처신 잘 해.”라고 말하며 미영 언니는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노려 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의 행동에 속상해진 나는 회의실을 뛰쳐 나가 화장실에 가서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니,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더욱 미움을 받을 것 같아 조용히 연구 노트와 펜을 챙

겨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 보시는 도쿄 대 교수님의 눈길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 자리에 앉아 책들을 뒤 척이며 바쁜 척을 했다.

모두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머리속에 ‘띵’하고 소리가 울려서 책상 서랍을 열어 초콜릿을 하나 꺼냈다. 그것을 먹으려고 숙였던 고개를 들었는데, 도쿄대 교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셨다.

“Can I get one, too? (나도 하나 줄 수 있어요?)”라고 교수님은 말을 거셨다.

“Of course. (물론이죠.)”라고 말한 후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서랍을 열어 초콜릿을 꺼내 건넸다.

“Thank you. (고마워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시고는 포장지 를 벗겨 초콜릿을 입에 넣으신 후 얘기를 이어가셨다.

“Do you have time for coffee? (커피 마실 시간 있어요?)”라고.

갑작스런 물음에 내가 당황한 것을 눈치 챘 교수님은 가볍게 웃으며 얘기했다.

“Nothing serious, I just want to take a sip of coffee. However, since I'm not familiar with the area, I need someone to show me the way. (심각한 거 아니에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내가 이 주변을 모르니까,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Please give me a minute to wrap up what I am doing. (지금 하던 거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나는 답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펼쳐진 연구 노트와 책들을 정리했다.

“Sure, take your time. (물론이죠, 천천히 해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책상을 대충 정리하고 난 후 미니 토트백과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를 챙겨서 나는 교수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누르며 나는 물었다.

“Is it okay to go to Starbucks? (스타벅스에 가도 괜찮아요?)”라고.

“Oh, I love it. They serve the same coffee wherever we go all around the world. That’s why I love to go Starbucks in any country. (오, 좋아요. 스타벅스에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커피를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가나 스타벅스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이죠.)”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I don’t have any idea about that. I’ve never been in the other country. (그런 줄은 몰랐네요. 전 다른 나라에 가 본 적이 없거든요.)”라고 말하며, 해외 여행을 해 보지 못했다는 사

실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서 교수님이 서 계신 방향과 반대 쪽으로 나는 고개를 돌렸다.

“That doesn’t matter. Someday you’ll meet the chance to go abroad. (무슨 상관이에요. 언젠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올 거예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Right. I hope so.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하며 나는 가볍게 미소지었다.

“Well, the very first Starbucks store in Korea is outside the campus, though I prefer this place. Especially the view that we can see from inside the store is beautiful when it is raining. (음, 한국의 첫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학교 밖에 있는데요, 전 이 매장을 더 좋아해요. 특히, 비가 오는 날 매장 안에서 보는 풍경이 예쁘거든요.)”라고 말하며 나는 교수님을 옥상 정원의 엘리베이터로 데려갔다.

“Would you rather go to the first store? (첫번째 매장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나는 교수님의 의사를 물으며 표정을 살폈다.

“I don’t mind either place. And I can go to the first store when I come to the office tomorrow. (어디든 괜찮아요. 그리고 그 첫번째 매장은 내일 연구실로 올 때 가 볼 수도 있고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을 학교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 매장으로 데려갔다.

“Tall sized hot americano, please.(톨 사이즈의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주문을 한 후 교수님은 나를 쳐다보며 물으셨다.

“What do you want?(뭐 마실래요?)”

“Caffe latte with a little hazelnut syrup(헤이즐넛 시럽을 넣은 카페 라떼요.)”라고 답했다. 내가 자주 마시는 메뉴이기에 아무 생각없이 말해 버렸다.

“Did you hear her? Tall sized that drink too please. (그녀가 말하는 것 들었죠? 툴 사이즈의 그 음료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교수님은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미셨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점원이 카드를 받아 계산을 마치는 것을 당황스러워하며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보며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It's my treat. It's a sort of reward for your kind behavior towards me, today. Thank you, Miss Ha. (제가 낼게요. 오늘 제게 친절하게 대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고마워요, 하 양.)”라고.

“Thank you very much! And anyone would do what I did in my shoes.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위치였다면 누

구든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운이 좋게도 이 매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쪽으로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앉혀 드린 후, 나는 음료를 받아서 자리로 돌아왔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교수님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을 꺼내셨다.

“What was that at the meeting room? (아까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었어요?)”라고 내게 물으셨다.

“Well, it was just a usual follow-up meeting among students since some of us are not good at understanding in English. (음, 일반적인 후속 회의예요. 학생들 중에는 영어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라고 대답하며 나는 최대한 담담해 보이도록 목소리를 꾸몄다.

“So you are the one who is good at communicating in English and you enlightened them. I see. (그래서 당신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설명해줬군요. 알겠어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몇 번 끄덕여 긍정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다. 교수님의 시선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But why did they tease you? (그런데, 왜 그들이 당신을 괴롭혔나요?)”라고 교수님은 내게 물으셨다.

‘역시 아까 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을 들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보이도록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No, they didn’t tease me. Just they are not kind people, and sometimes that makes me disappointed. That’s all. (아니에요,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끔 그게 저는 서운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라고. 나는 이 분이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지 몰랐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Well, alright. When did you start your master degree course? (그렇군요. 석사과정은 언제 시작했어요?)”라고 교수님은 물으셨다.

“I didn’t enter the course yet. I will take the exam next month and I may pass it, hopefully.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라건데, 다음달에 있는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라고 나는 답했다.

“Oh! You didn’t start your degree course, and you gave a good presentation in English in front of the foreign expert! It’s impressive! (아! 아직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외국인 전문가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잘하다니. 인상적이네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Thank you, you are overpraising me. (고맙습니다. 과찬 이세요.)”라고 말하며, 나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여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I know a couple of things about being an extraordinarily good student. It can make others jealous, and sometimes jealousy drives people to do foolish things. It's evident that others feel jealousy toward you. (저는 특별히 뛰어난 학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때로 그러한 질투심은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만

들지요. 당신에게 다른 학생들이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그런 위로를 받으니, 아까 회의실에서 느꼈던 서운한 감정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울컥 나올 것 같았다. 나는 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감정을 추스렸다.

“Thank you. And I never think I am good enough to study astroparticle physics.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 절대로 제가 천체입자물리학을 공부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라고 나는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울컥하는 감정을 더욱 억눌렀다.

“And you’re humble! It’s a pleasure to know you! (게다가 당신은 겸손하군요!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 때 ‘쏴아아-‘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다.

“Look! It’s raining! (보세요! 비가 와요!)”라고 말하며 나는 유리창 밖을 가리켰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가 유리창 밖 스테인레스 조형물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This is the view that I mentioned earlier. Isn’t it amazing?(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풍경이에요. 멋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며 나는 고개를 돌려 눈가에 흐르기 시작하는 눈물을 몰래 닦아 내었다.

“Right. I suppose the architect was meant to show it to the others when the person designed the building.(그렇네요.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를 염두한 것 같군요.)”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다행히 내 눈물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세차게 내리던 비는 소나기였는지, 곧 완전히 그친 것처럼 보였고, 컵에 담긴 커피가 거의 남지 않기도 해서, 휴대전화의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4시 30분이었다. 5시에는 연구실에서 나와 인천으로 가야 과외 수업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If you don’t mind, can we go back to the office? I have to go home at 5 pm. (괜찮으시다면, 사무실로 돌아가도 될까요? 5시에는 집에 가야 하거든요.)”라고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Sure. I consumed enough caffeine. Let’s go back. (물론이죠. 카페인을 충분히 섭취했어요. 돌아가죠.)”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얼굴은 아까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And one more thing. (그리고, 하나 더요.)”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If you don't mind, I would like to keep in touch with you. If you have any question for becoming a physicist, please ask me freely. (괜찮다면, 당신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군요. 물리학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물어보세요.)”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명함을 내미셨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 들었다.

“I don't have a business card. Could I send you my contact information to this email? (저는 명함이 없어요. 이 이메일로 제 연락처를 보내드려도 될까요?)”라고 나는 말했다.

“Right. I will happily wait for your email! (그럼요. 당신의 이메일을 기쁘게 기다릴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유리로 된 연구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시면서 내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시는 교수님께 가벼이 목례

를 한 후, 연구실로 들어오는 나를, 연구실 문 근처에 놓인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던 미영 언니와 지은이가 쳐다보았다. 문을 닫으면서 나를 뒤따라 들어오시는 교수님과 눈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가는 내 등 뒤로 미영 언니와 지은이, 두 사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내 자리로 돌아왔다. 어차피 내가 교수님과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니 마음에 걸릴 일도 없었다. 단지, 저들이 나를 험담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 준 것 같아 기분이 편하지 않을 뿐이다.

끝

(그리고 계속.....)

# 맺음말

이 얘기를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무렵이니 꽤 오래 전 일입니다. 그동안 이 얘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어서, 제 속에서 굽을대로 굽어서 상처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 ‘AI 활용 전자 책 만들기 챕(CHAT) 책 쓰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Chat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얘기를 조금씩 써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ChatGPT와 함께 논의하고, 대화를 매끄럽게 작성하거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등의 확인을 ChatGPT가 해 주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책 표지는 Photoshop(포토샵)과 Acrobat pdf reader(아크로뱃 피디에프 리더)로 유명한 Adobe(어도비) 사의 firefly(파이어

플라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여 만든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Wuthering Heights(폭풍의 언덕)’를 곰인형이 들고 있는 책 표지에 새겨 넣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이 저의 주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이상한 문자를 결과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최선의 결과물이 여러분들께서 보신 표지입니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오도록 제 곁에서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독서동아리 친구들과 이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후속 얘기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1월 스타벅스에서 크리스마스 음료를 마시며,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제목 불면증1

발행일 2023년 12월 3일

저자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및 ChatGPT

3.5 공저

표지디자인 Olivia S Wright(올리비아 에스 라이트) 및 Adobe  
firefly

출판사 유페이지 전자책

가격 1,500 원